

삶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장례지도사

영화 <파묘> 속 장례지도사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올해 2월 개봉해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파묘>는 풍수사 상덕(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거액을 받고 부장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다. 베테랑 장의사로서 숙련된 몸짓으로 이장(移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영근은 작품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에 '염사, 염쟁이' 등으로 낮춰 부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장례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망자 발생 시 시신을 안치하고, 유족과 상담 후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 등 장례 일정과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례지도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장의사에서 '장례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례지도학과가 생기는 등 상조 관련 직업의 접근성이 확대돼 연령대가 점차 넓어졌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나 시신 위생처리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갑작스러운 장례 일정을 고려해 24시간 긴장 태세와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슬퍼할 유족과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처럼 세심함이 요구되는 장례지도사는 대부분 어둡고 소음이 있는 열악한 지하 환경에서 일한다. 시신과 오래 밀접하면서 감염위험도 노출돼 있다. 더불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기회 부족, 감정노동이 극심한 장례서비스 업무, 장례식장의

열악한 처우 등 고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장례지도사의 하루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 교육원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과 현장실습 등 총 300시간 교육을 수료하거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 후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시·도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뒤에는 상조회사 혹은 장례식장에 입사해 주말과 공휴일 개념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쉬는 날이라도 장례가 생기면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여야 한다. 24시간 혹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출상과 입관이 주로 새벽과 오전에 진행되는 만큼 추가 근무도 잦다. 사고사로 훼손이 심하거나 부패한 시신의 경우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또, 시신 곁에 오래 머무는 장례지도사는 화학적 유해인자와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화학적 유해인자에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에틸알코올, 페놀,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포르말린) 등이 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노출 기준은 1ppm인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교재에 기재된 외국 장례 종사자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평균 0.3ppm에서

0.336ppm 정도다. 산업보건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기준의 40% 수준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신이 생물학적 인자를 가졌거나, 의심된다면 적당한 예방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유가족의 든든한 지원자, 그러나

장례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가족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장례지도사의 역할 중 하나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장례상당 시 유가족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가족 간 있었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가 있는 한편, 감정고갈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난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직 장례지도사의 사연이 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의 곡소리에 적응되다 보니 감정이 무뎠어져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됐다. 염해야 할 시신이 들어와도 귀찮은 일거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고 무서움에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말해 놀라게 했다.

장례지도사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다. 하지만 이들이 견뎌야 할 죽음의 무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노동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



장례종사자의 위험성

구분	위험 인자
화학적 인자	소독제: 에틸알코올, 페놀, 크레졸 방부제: 포르말린
생물학적 인자	결핵: 결핵 보균자 시신의 비말을 통해 간염 바이러스: 간염 보균자 시신의 혈액과 체액 접촉을 통해 AIDS: HIV 보균자 시신의 혈액 접촉을 통해

출처 :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2012)